어린이집·유치원 3110곳에 '돌봄운영비'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대 지원
맞춤형·휴일형등 틈새돌봄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유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운영 지원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차에 걸친 지원 계획을 마무리하고, 전국 최대 규모인 3110개 기관(유치원 863개, 어린이집 2247개)에 돌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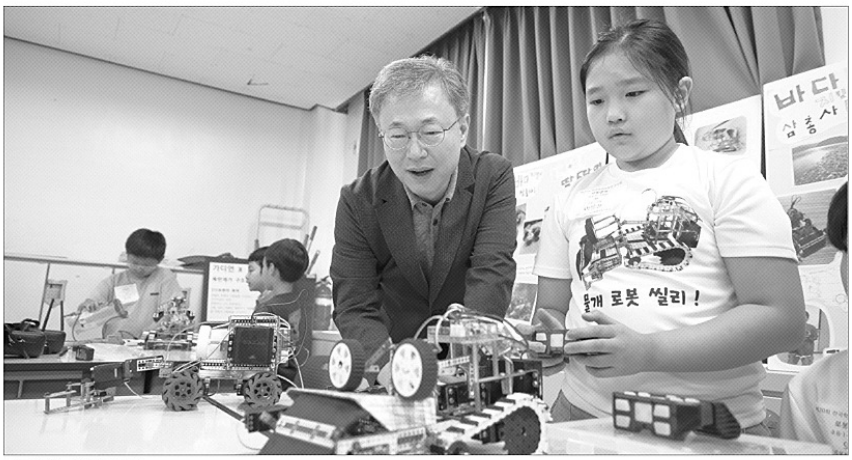
지원 항목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급·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돌봄 인력 인건비 등으로, 충분한 돌봄 시간 확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지역 특색과 기관별 장점을 살린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유형은 ▲맞춤형 돌봄(아침·저녁 및 방학 중 돌봄) ▲휴일형 돌봄(일요일·공휴일 돌봄) ▲방학 집중형 돌봄 ▲지자체 연계형 돌봄(오후·저녁 돌봄) 등으로,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점 기관 12개를 지정해 틈새 돌봄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안심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돌봄 모델을 개발·확대하고 공백없는 촘촘한 돌봄 망을 확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치원·어린이집,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 서울 구로구가 최근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제20회 전국학생로봇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대회는 (사)한국학교로봇교육진흥회가 주관·주최하고, 구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운대학교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 경진 행사로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사진은 장인홍 구청장이 대회 참가 학생들의 창의적인 로봇 창작 작품을 살펴보는 모습.

서울 중구, 오는 30일 '일자리박람회'

신세계센트럴·롯데쇼핑등 구인기업 15곳 참여
현장면접으로 180명 채용… 1:1 취업상담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30일 오후 2~5시 구청 7층 대강당에서 '2025 중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중구청과 서울고용노동청이 공동 주관하며, 구직자와 구인업체, 유관기관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신세계센트럴, 롯데쇼핑(주), 동국대학교 등 15개 기업이 참여하며, 180여개 일자리 주인공을 찾는다.

박람회는 ▲기업채용관(1대1 현장면접 및 채용) ▲취업지원관(구직 정보 제공 및 상담) ▲가치체험관(사회적경제 체험) ▲부대행사관(지문적성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구인·구직 현장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특강으로는 'AI 활용 입사지원서 작성법'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구청 앞 광장에서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일자리 부르릉버스'가 운영돼 이력서 사진 촬영, 1대1 맞춤형 상담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구는 온라인 채용관도 함께 마련했다. 취업 전문사이트인 인크루트(Incruit)에 오는 30일까지 '중구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며 30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박람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도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 관련 문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구는 일하기 원하는 주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국공립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내년 개원

광주시, 설치 절차 본격 착수
정원 24명… 4개 치료실 갖춰

경기 광주시는 2026년 4월 개원을 목표로 국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국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위탁체(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10월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서울 및 경기도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서울 및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이다.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조성될 국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송정동 구청사 복합건축물 1층에 위치하며 총면적 618.26㎡, 정원 24명 규모로 건립된다. 내부에는 보육실 4개, 집단활동실, 원장실, 교사실, 주방, 화장실, 창고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감각치료실·언어치료실 등 4개의 치료실을 설치해 장애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위탁 운영자에게 다양한 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위탁체 선정 이후 실내장식 공사와 기자재 구입 등 개원 준비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 영유아와 같은 취약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어린이 건강체험관 새단장
아산시, 내달 27일 재가동

충남 아산시가 내부 환경 개선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오는 10월27일부터 재개관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단체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노후화된 콘텐츠를 일체적으로 교체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마트 ▲심폐소생술 ▲활성산소 물리치기 ▲음식소화 과정 등 신규 콘텐츠를 신설했다. 또한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체험 공간으로 내부 환경을 개선했다.

이용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며, 지역내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단체 또는 개인별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몰입도와 실생활 연계성을 높여 어린이들의 감각 통합 능력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오감 자극형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모바일 행복이음' 현장서 업무 수행… 복지플래너에 태블릿 보급

강북구, 2개洞서 시범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복지현장 방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맞춤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태블릿 기반의 모바일 행복이음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이음은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중앙정보시스템으로, 개인·가구 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전용 태블릿 기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행복이음 서비스는 기존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상담, 사례관리, 신청 접수 등의 복지업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복지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하면 대면 상담과 동시에 신청서 접수, 복지 서비스 등 업무처리가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에 구는 최근 동 복지플래너에게 공용 태블릿을 보급하고, 수유3동과 인수동 두 개 동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아울러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즐기며 배우는 '노인 디지털 골든벨'… 노원구, 내달 27일 경진대회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10월27일 노인들이 디지털 세상에 좀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전! 노원어르신 디지털 골든벨'을 개최한다.

구는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도록 '즐기며 배우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먼저 식전 행사로 운영되는 '디지털 체험존'에는 노인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놀이 콘텐츠가 내장된 ▲해피테이블을 비롯해 ▲스탠드 키오스크 ▲디지털 색칠놀이 ▲AI돌봄로봇체험 ▲스마트폰 사진 출력 등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이어지는 본행사 '도전! 디지털 골든벨 경진대회'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필기 5문제와 실기 3문제로 구성된 퀴즈가 진행된다.

경진대회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10월1일부터 17일까지 노원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광진구, 화양생활지원센터 운영 돌입

제습기·무선청소기등 대여
전등·수도꼭지등 집수리도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구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양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화양동은 단독·다세대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적다.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청년 1인가구 숫자가 서울시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구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화양생활지원센터(군자로 34)를 운영한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92㎡ 면적이며, 옛 CCTV 관제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예산 8100만여원을 들여 ▲생활편의제공 ▲주거환경개선 ▲청소 및 안전관리 등 주민 생활편의를 가까이에서 챙겼다.

생활 물품을 빌려준다. 제습기, 무선청소기, 스팀다리미 등 혼자 사는 가구가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 택배물품을 임시 보관해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커튼 등 세탁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1인가구와 취약계층에게 전등, 수도꼭지, 샤워기 교체 등 간단한 수리를 도와준다.

지역 안전도 살핀다. 골목을 돌아보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처리한다. 순찰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들을 관련 부서나 기관에 알려, 안전관리에도 신경 쓴다.

김경호 구청장은 "화양동은 1인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 화양생활지원센터가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장애 민원인 화상 수어 통역
인천 부평구, 전용모니터 설치

인천 부평구가 청각·언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상 수어 통역 서비스'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에는 5400여명의 청각·언어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구청을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때 손글씨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별도의 수어통역사를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장애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실내 '화상 수어 통역 전용 모니터'를 설치했다.

민원인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 홈페이지내 '수어상담'에 접속한다. 이어 전용 모니터를 통해 수어상담사가 실시간으로 민원인과 화상으로 수어 통역 후 민원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음성으로 전달하는 3자 통역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학부모 급식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모습.

성북구, 학부모 급식아카데미 요리 프로 운영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역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급식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자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가정내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지역내 학부모와 학부모 급식모니터단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저속노화 식생활'(저염·저당·저지방) 실천을 주제로 한 이론교육과 함께 요리연구가 정나래씨의 요리 시연이 열렸다. 학부모들은 시연을 통해 실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구성법을 배웠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요리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직접 조리에 참여해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생활 건강 식단을 체험하고 익힐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구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식생활 실천력을 높이고, 자녀의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강남구, 25일 발달장애인 '어깨동무 운동회'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5일 오전 10시~오후 3시30분 일원동 밀알학교에서 발달장애인 450명이 참여하는 '2025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운동회는 '누구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마련된 것으로, 밀알학교와 지역내 탑장애인 시설 등 20개 팀이 참가하며, 운동 실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 경기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센서를 활용한 '모션탭' 장비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는 밀알학교 실내체육관(제1경기장)과 야외 운동장(제2경기장), 아트리움(제3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장애 정도가 비슷한 참가자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2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대회 종목은 ▲플로어컬링 ▲스포츠스태킹릴레이 ▲타워크레인 ▲디지털 테이블 터치 ▲디지털 펜심 ▲디지털 랜덤 터치 ▲악력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과천시, 솔루션 위원회 가동… 전문가 20명 구성

경기 과천시가 최근 시청 별관2 회의실에서 긴급·복합적 위기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솔루션위원회는 학계·의료·법률·보험·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위촉직 14명·당연직 6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2년간 상시 운영된다.

위원회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의뢰하는 긴급하고 복합적인 사례를 다각적으로 논의해 개별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김계선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김민애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위촉위원들이 참석해 활동 다짐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과천=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관악구, 으뜸육아아빠단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아빠들의 육아 역량을 강화해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한 '관악으뜸육아아빠단' 활동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악으뜸육아아빠단'은 지역내 아버지들이 육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가족친화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됐다.

관악구 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출범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46가구가 아빠단 참여자로 선정돼 약 5개월간 활동을 이어왔다.

프로그램은 관계 형성부터 문화 체험까지 다채로운 주제로 운영됐다. 아빠들은 '칭찬의 언어'를 배우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칭찬미션'으로 아이와 긍정적인 소통의 첫걸음을 떼었으며, ▲관악산 나들이 ▲완예 활동 ▲요리 ▲문화체험 등 아빠와 자녀 간 친밀감을 쌓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육아에서 아빠의 역할과 육아의 의미를 되새기는 부모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인천 연수구, 연령대별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인천 연수구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연령대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12만5000명이다.

22일부터 생후 6개월~8세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생애 처음 예방 접종하는 어린이)를 시작으로, 1회 접종 대상자(9~13세 어린이)와 임신부는 29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접종 일자를 구분해 진행한다. ▲10월15일(수)부터 75세 이상 ▲10월20일부터 70~74세 ▲10월22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10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역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